

# 가정의 선교사로서의 부모

성경 본문	빌립보서 2:5~11
요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
찬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믿음의 가정
이과의 목표	가정은 다양한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다문화 공동체라는 것을 이해하고, 부모와 배우자가 선교적인 관점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다짐한다.



## 1. 생각하기

1.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2. 자녀와 배우자를 선교적인 관점으로 대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II. 생각 넓히기

### 1. 선교적 관점으로 보는 가정

가정은 혈연과 언약으로 엮여 있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반면에 가족 구성원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자매 사이에 오해와 서운함, 갈등과 원망,

아픔과 상처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화를 정의할 때, 언어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생활방식, 즉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사실 가족 안에 여러 문화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정은 다문화 공동체이고,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선교지와도 같습니다. 나이와 성별의 차이, 세대 차이로 대변되는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모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모델을 따랐던 선교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 2. 예수님의 모델

빌립보서 2:5-11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즉 성육신에 대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고,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있는 이 위에까지 올라오라”고 말씀하는 대신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써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겪어야 할 온갖 제한 속으로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신의 영역을 떠나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택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 2:8).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의 선택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슈퍼 히어로 (Super Hero)들의 활약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개봉되었는데,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힘으로 악한 세력을 응징하고, 보란 듯이 위세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는 영웅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택하신 길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총이나 칼, 혹은 어떤 강력한 무기를 드는 대신에, 그 손을 날카로운 못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대신 자신이 피를 흘리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육신과 십자가, 이 두 가지가 성공적인 선교를 위한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지금까지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 3. 예수님의 모델을 선교지에서 적용하기

그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문화가 우월하기에 현지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자신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직시하고 각 민족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비록 나와 다르지만 그 다름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는 동시에, 각자의 문화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모델처럼, 현지인에게 선교사의 문화를 답습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현지인의 문화를 배우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자신의 문화를 우월하게 여기는 자세를 반성하고 다른 민족의 문화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와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 계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개하고 열등하게만 보았던 현지의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선교사의 문화를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현지인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일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실천하신 성육신적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때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수퍼맨 신드롬 (Superman Syndrome)”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능력을 가진 수퍼맨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모든 문제를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입니다. 이런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나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약한 면이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러한 수퍼맨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강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약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이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수퍼맨 신드롬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십자가 모델을 따를 때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예수님의 모델을 가정에서 적용하기

그러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내가 있는 자리로 올라오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자신이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부모들이 자기 세대의 문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다면, 자녀들은 그들 세대의 문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며 조바심을 내거나,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서로의 마음을 얻는 역설적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Wonder Woman) 같은 강한 남자와 강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떠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가정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가족들이나 친지들과 잘 나누지 못합니다. 약하게 보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함을 나누는 것이 배우자와 자녀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 배우자나 자녀들을 내가 전적으로 부양하고 책임져야 하는 대상으로뿐만 아니라, 인생의 파트너와 인생의 동역자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혹은 내가 의지할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동역자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실수를 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 감정에 좀 더 솔직해지고, 그것을 가족과 나누어 봅시다. 개인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직장이나 일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빌 2:10). 예수님은 강요와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낮아짐과 약함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셨고 그들의 입에서 주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빌 2:11).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의 신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효과적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일방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문화 공동체로서 선교지와도 같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교훈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선교적인 자세를 적용하고 실천해 봅시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 III. 생각살기

1. 당신이 가정의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혹은 배우자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소그룹(셀, 구역)이나 교회가 그런 가정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